

우리의 꿈과 끼를 발산하다

인천박문중, 제14회 백은제

박문중학교(교장 박원희)는 지난 9월 2일 제14회 백은제를 개최했다. 학생생활지도부와 학생회가 주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후원하는 백은제는 박문인의 재능과 함께 준비한 노력을 마음껏 쏟아붓는 화합의 한마당이었다.

총 3부로 이뤄진 이번 백은제를 여는 마당으로 개막식과 풍물부 공연으로 막을 올린 후, 각 동아리에서 준비한 동아리 마당으로 제1부를 알차게 만들었다.

그리고 점심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2부에서는 방송부 영상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끼와 흥을 엿볼 수 있는 솔로, 혼성 트리오, 랩, 댄스, 그리고 밴드 공연을 했으며, 바로 이어서 제3부에서는 각종 시상과 추첨을 하고 마무리했다.

1부 동아리 마당에서는 '수학 작품 전시', '매듭 꼬임 알아보기', '수학 건축 집 제작하기', '보드게임 카페' 같은 수학 체험 마당과 '프라모델 전시', '마블링 실링' 및 학생 작품 전시, '영어 실력 영상 캡처 전시' 등을 포함한 호기심 많은 과학 체험 마당과 '삼행시 짓기', '십자말풀이'와 같은 우리말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미니축구 All Star', '박문 딱지치기 대회', '내가 락구방',



“공기놀이방”, “포켓몬 페이퍼크래프트”, “이글 샷(골프 퍼트)”, “오목 왕 선발대회”와 같은 경쟁활동과 신체활동 위주의 동아리 활동으로 건강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박문 포토제닉’, ‘다문화 영화상영(완독이)’, ‘일본문화체험 및 영상 상영’, ‘중국어 화상영 및 전통 의복 체험’, ‘별종위기동물 소개’, ‘마블링 실링’과 미적 감각을 향상하는 ‘화생작품전시’, ‘캐리커처 및 개인 작품 판매’ 등 미술 작품 활동으로 학생들은 오전 내내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과 수업 시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배우고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후에 전개된 제2부 공연마당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웠다. 방송부 영상의 상영 후 시작된 혼성 트리오의 경이한 목소리와 감미로운 하모니가 강당을 가득 채웠으며 요즈음 높아져가는 합창의 위상으로 1학년 랩 솔로와 랩 동아리 Show yourself의 멋진 무대는 매우 인기가 높았다.

계속된 2학년의 밴드와 댄스부는 세미로가 소개되자 환호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학업을 지친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강한 비트로 치유할 수 있었다.

공연을 본 한 학생은 “공연 너무나 무 좋았어요. 저도 밴드를 하는 게 꿈인데 이렇게 같은 학교 친구가 공연

하는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빨리 밴드를 배우고 싶어졌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3학년 댄스와 댄스 동아리 시나브로의 공연도 학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댄스 공연을 마치고 난 후 댄스에 참가한 학생은 “무대에서 매우 떨려서 실수도 했지만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춤추는 것도 좋고 시나브로 팬이 많이 생겨서 더 열심히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라며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제3부에서는 각종 시상과 추첨으로 강당의 열기를 정리하며 전교생이 함께 즐거워했던 백은제14회 백은제를 아쉬움으로 마무리했다.

배움이 있는 교실로 초대합니다

인천구산중, 학교 공개의 날 행사 실시

구산중학교(교장 유영옥)는 9월 9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공개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공개 수업 전에 학부모들에게 학교 주요 행사와 수상소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번 공개 수업은 6교시에 각 교실과 특별실을 개방해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수업을 참관하도록 했다.

2, 3학년은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공개했고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1학년은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을 공개했다.

1학년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캘리그래피, 상품디자인, 보컬 트레일링, 바느질의 달인, 영어로 보는 영어동화, 미래직업 사진탐구, 도면 그리기, 난타 퍼포먼스, 영상미디어 유비 페러디, 뉴스포스트, 카바다,



방송 댄스 등 있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학교 공개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천모 학부모는 “자기와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며 적극적으로 즐겁게 수업

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내가 수업받는 학생이 된 듯 몰입해서 수업을 참관했다. 배움이 이렇게 즐거운 수도 있다니 신기하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인원섭 기자 as@



산곡여중,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실시'

산곡여자중학교(교장 심순옥)는 9월 9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의 하나로 진일제 교과 연계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산곡여중은 “진일제 교과연계 진로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고 해당 분야에 대한 계획과 꿈과 끼를 찾아보는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부평소방서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

은 “소방관들의 업무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게 됐다”며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인원섭 기자 as@

기대됩니다, 바른 인재가 만든 더 큰 내일

공인 내부가 높이 자라다
 뜻을 바로 세운 사람이 세상을 리더한다.
 중앙대학교는 사명감과 인재를 자라게 하는
 상지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상지대학교

**바른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접근방법,
 상지대학교의 바른 인재가 만들어갈
 더 큰 내일이 기대됩니다.**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학생복지지원센터 (신원동) (신원동) (신원동)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인천만석초, 두산산업차량 도서·체육교구 전달식 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이다. 지역사회의 건실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말을 실현한 학교가 있다.

인천만석초등학교(교장 임항빈)는 9월 5일 14시 교내 풀린동 도서관에서 2016 두산산업 차량 도서·체육교구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일부인 기업이 학교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발전을 위해 도서와 체육교구를 증정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학교 발전과 아동 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 기업 간의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됐으며, 지역사회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과 나눔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서 만석초는 기업에 학교 교육을 자재로 안내하고 학교 시설과 교육 현황 등을 홍보했으며, 기업은 학교 발전 및 학생 교육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학부모회 회장, 총무와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 교육 발전을 도모했고 실제 교육 수요자와 대화의 장도 마련했다. 이 행사를 통해 학교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해 나갈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은 학생들이 즐겁게 배움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임항빈 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함께가는 교육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만석초는 든든한 지역기업과 함께한 교육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꾸준한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원섭 기자 as@

강화평생학습관 평생교육 나눔 프로젝트 실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일)은 강화평생학습관 평생교육 나눔 프로젝트로 9월 10일 토요일에 교육문화 예술장터 SEA MARKET에서 하태 화해! 핸드드림 체험을 운영하였

다. 평생교육 나눔 프로젝트란 강화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 2명이 SEA MARKET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평생교육 나눔 프로젝트란 강화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 2명이 SEA MARKET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바리스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